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또 파업 전운

노조, 지노위에 정의조정 신청...오늘 파업 찬반투표 사측 “임금인상 요구안 터무니없다, 정의행위는 불법”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에 또 다시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17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파업이 가결되면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순조롭던 경영 정상화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회사 측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노위에

정의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사측은 각각 15일 오후 지노위에 출석해 사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17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4일 지노위 조정기간이 끝나면 25일째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관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단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그동안 교섭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통보서를 2차례 보내고 결렬을 선언했다”면서 “워크아웃 이전 평균임금의 40% 인상 등 요구안이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워크아웃 종료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정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노조의 정의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에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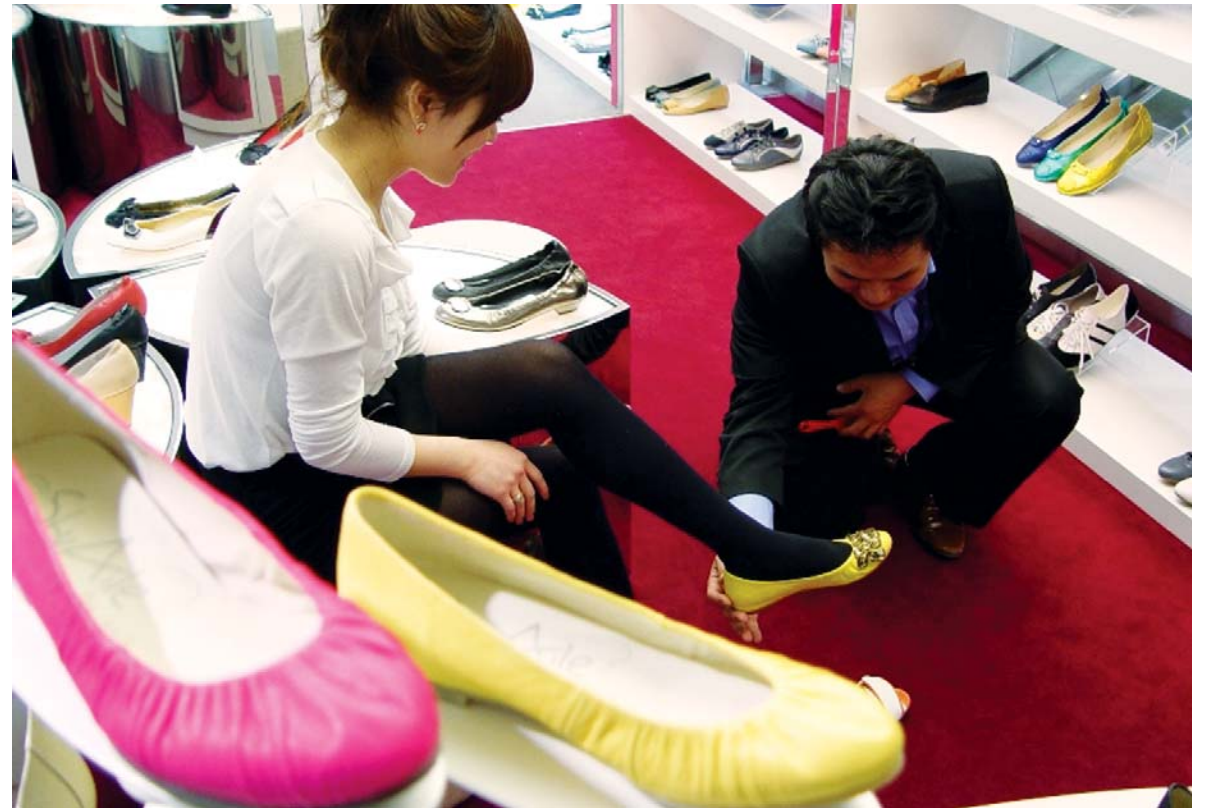
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해 도급화를 통한 인원 조정과 임금 삭감 등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노조가 임단협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정의행위를 가결하면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특근 거부 등으로 매출 손실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일부터 특근(휴·연근)을 거부한데 이어 9일부터는 하루 1시간씩 기계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하루 18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지난해 14일까지 손실액이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봄엔 플랫슈즈 신어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곽광수)신발매장에서는 굽 2cm미만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는 ‘플랫 슈즈’가 올 봄 최고의 신발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보해양조 ‘순희’로 막걸리 시장 진출

올 국내시장 5% 점유 200만달러 수출 목표



보해 장성공장에서 우리쌀 파스타리 막걸리 ‘순희’가 생산라인을 통해 출시되고 있는 모습.

보해양조(대표 임건우)가 우리쌀 파스타리 막걸리 ‘순희’(純喜)를 출시하고 막걸리 시장 진출에 나섰다.

100% 국내산 쌀과 노령산맥 지하 253m의 천연암반수를 이용해 빚은 막걸리 ‘순희’는 보해만의 차별화된 16일간의 장기 저온발효와 후속성 공법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뛰어나다. 우리쌀 파스타리 막걸리 ‘순희’의 알코올도수는 6도, 용량은 750ml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보해중앙연구소에서 5년간의 연구를 통해 파스타리 공법(저온살균법)을 적용해 막걸리 본연의 영양과 신선한 맛이 균일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순희의 유통

기간은 12개월로 장기보관과 전국 판매가 가능하다.

보해양조는 순수 우리쌀 파스타리 막걸리 ‘순희’의 특성을 최대한 알려 올 국내 막걸리시장 5% 점유율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200만달러 수출목표를 세웠다.

병 디자인도 전통 막걸리 도자기병에서 착안한 모양의 PET에 식감을 자극하는 아이보리색을 사용해 전통의 멋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했다. 특히 ‘순희’는 어린시절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친근하고 부드러운 쉬운 브랜드명으로 소비자들의 기억에도 쉽게 남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TV CF를 비롯한 각종 마케팅 활동을 펼쳐 막걸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막걸리 시장의 성장세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G마켓 ‘공짜의 날’

G마켓(www.gmarket.co.kr)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인 인기 패션 제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갯프리데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G마켓이 선정한 특정 패션 상품 일정 수량을 선택순으로 무료 판매하는 것이다.

배송료 2500원만 지불하면 공짜로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은 20~30대 고객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상품 위주로 선정된다.

오는 23일 진행될 갯프리데이에서는 캔버스 운동화점 3000여점이 준비돼 있다. 오전 10시, 오후 12시, 4시 등 4회에 걸쳐 선착순 구매할 수 있다.

다음달 상품 맞추기 이벤트는 모자이크 처리된 상품 이미지를 보고 제품을 맞추는 것으로, 페이지 내 마련된 게시판에 상품명을 써서 응모하면 1천명을 추첨해 바나나맛 우유를 증정한다.

정식 오픈일인 23일에 구매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응모를 통해 10~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사고위험 높은 男 보험료도 비싸다

어린이·종신·건강·상해·자동차보험 등 남녀차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유럽에서는 성별을 보험료를 산정할 때 위험요소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는 관철도 있어 주목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 보험상품은 남녀 간에 보험료 차이가 난다. 보험료가 높을수록 사망 등 질병 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로 다칠 확률, 장기간 입원할 확률 등 남녀 위험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살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고를 칠 우려’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보험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보험개발원 표준위험률에도 0세 남자 생존율이 0.99728로 여자(0.99791)보다 낮게 조사되는 등 남성 위험도가 여성보다 높은 편이다.

성별 보험료 차이는 최근 인기를 끄는 이른바 ‘태아보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미해 판매하는 태아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남녀 차이가 기준이 된다.

우선 성별이 구분되지 전에는 남

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뒤 나중에 여아가 태어나면 다시 보험료를 정산해 차액과 이자를 돌려준다.

그러나 보험 가입 이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탈 때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 전 국민 대상의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도 성별이 보험료를 책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여성 운전자가 남성보다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고 대형사고도 남성 운전자에게서 많이 발생해 남성 운전자의 보험료가 약간 비싼 편이다. 이는 이번달 초 사고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연합뉴스

중진공, 창업기업에 ‘투자형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형태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투자형 복합금융’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6

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업자금과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신청대상 기업 중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대

출액은 30억원이며 상환기간은 일반 정책자금 신용대출에 비해 2년 더 긴 5년이다.

2008년부터 연간 3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벌이던 중진공은 올해부터 예산을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실업률 상승

고용률도 동반 하락

광주와 전남지역의 2월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광주전남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2월 취업자는 63만9000명이 감소했고, 고용률은 54.3%로 1.8% 하락했다.

실업자는 2만8000명으로 전년 동

월대비 0.7%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4.2%로 0.1%P 상승했다.

또 전남지역의 취업자는 8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8%(42000명) 감소해 고용률이 58.9%로 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2월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5.5% 증가했고 실업률은 3.3%로 1.1%P 상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월 카드실적 31조...10.8%↑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국내 카드 승인실적이 3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월보다는 14.0% 감소한 것이다.

협회는 “카드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과 지속적인 카드 선호에 따른 것이고 1월보다 줄어든 것은 월별일수 차이(31일→28일)와 2월초 설 명절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카드실적은 명절 이전에 명절 준비로 증가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감소한다. /*연합뉴스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 전천후 시공성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일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Dau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